

아트경기 x 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박 해 선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 잘해야 한다” 같은 말을 여기저기서 흔하게 듣는다. 2022년 한국은 바쁘고 힘들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로 번아웃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또 새로운 하루를, 한 주를 살아나간다. 예술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관해 말할 때,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한다. 누군가는 새로움에 대한 추구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누구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누군가는 치유나 심리적 만족감을 강조한다. 박해선은 조용하고 담담하게 남들이 무심코 지나갈 법한 사소한 장면을 그린다. 원래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버려진 대상을 발견해내서 새롭게 바라보기를 시도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그의 학력, 경력과 같은 스펙과 능력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각각 다른 장점을 타고나며 앞서 언급한 몇몇 기준으로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랜 시간 지켜보면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사물이 없듯이 말이다.



박해선, 없는 이름, 53x53cm, Oil on canvas, 2021

<없는 이름>(2021)은 누군가가 멋진 꽃다발을 위해 여러 꽃을 자르고 남은 자투리처럼 보인다. 잎사귀 어딘가가 치어서 색이 바랬다든지, 꽃이 조금 시들었다든지, 길이를 잘못 잘랐다든지, 여러 이유로 꽃다발에 사용될 가치를 상실한 자투리들을 화면 가득 담고 있다. 중간톤의 색을 이용해 색의 대비를 줄였으며, 캔버스에 그려진 여러 송이의 꽃들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그려졌다. 누군가의 눈에는 효용가치를 상실한 쓰레기일지 모르는 이 꽃들은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어딘지 모를 처연함을 동시에 담고 있다.



박해선, 아침이 되면 사라질 거예요, 90.9x65cm, Oil on canvas, 2021

<아침이 되면 사라질 거예요>(2021)는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벤치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그렸다. 여럿이 같이 앉을 때 서로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부착된 이 손잡이는 밤길을 환히 비춰 주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림자를 만들며 마치 자그마한 하트의 모양을 만들어낸다. 작품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자와 원래 오브제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 형상은 특정 시간 특정 각도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벤치의 형태라든지, 공원을 거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는 대신, 박해선은 벤치의 일부분을 바라보고 화폭에 담았다. 이 작품은 잠깐이지만 우리 눈에 보였다가, 손에 잡히지 않고 스르르 사라져버리는 많은 것들에 관해 생각해보게 한다. 박해선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것, 작고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 완전하지 않은 것들은 존재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해 사유하게 한다.

글 최정윤 / 독립기획자



동시대 미술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또한 영등포에 위치한 비영리 전시공간 위켄드를 공동 설립(2016), 1년간 운영했다. 공동기획한 전시로 <청춘과 잉여>(커먼센터, 2014), <사물들: 조각적 시도>(두산갤러리, 2017)가 있으며, 2016년에는 젊은 작가들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다룬 <Rules>(원앤제이갤러리)전을, 2019년에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회화적 가능성을 말하는 <Painting network>(신한갤러리 역삼)전을, 2022년에는 임신 출산 이후 변화된 여성작가의 삶에 대해 말하는 <New Life>(스페이스윌링앤딜링)을 기획했다.

작가 박 해 선 Park, Haesun b.1982 (2022 아트경기 선정작가)



복숭아, 53x53cm, Oil on canvas, 2021

박해선은 이미 기존의 어떤 가치를 상실한 또는 지극히 사소하거나 쓸모에 대해 논할 수 없는 모호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장면과 사물을 주제로 회화 작업을 한다. 완성의 기준으로 볼 때 쓸모를 다하고 남은 자투리이자 무언가를 상실한 순간은 오히려 존재의 증명을 나타낸다. 주요개인전으로 <사라지는 시>(우민아트센터 내 프로젝트스페이스 우민, 2020)과 <불완전한 궤도>(예술공간 서:로, 2019), <Inside Out>(팔레 드 서울, 2017) 등이 있다.

사업소개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2022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은 아트경기 협력사 믹MEEK의 기획으로 진행, 2022년에 선정된 아트경기 작가와 다학제적 장르를 대표하는 멘토를 매칭하여 비평을 진행한다. 총 8인의 아트경기 작가와 3인의 전문가는 9월부터 11월 동안 1:1 면담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었고 그 결과 총 8편의 비평글이 작성되었다. 8편의 비평글은 작가와 협력사 믹, 전문 평론가가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며, 아트경기 작가의 다양한 해석과 장르 확장의 지점을 제공한다.